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3-8호 | 2023년 2월 15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정태호 | idp.theminjoo.kr

떨어지던 물가를 정부가 다시 올렸습니다

채 은 동 연구위원

《요약》

■ 떨어지던 물가를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다시 끌어올림

- 소비자물가상승률 : ('22.7월) 6.34% → ('22.12월) 5.04% → ('23.1월) 5.17%
- 1월 물가상승률 5.17%는 도시가스 0.46%, 전기료 0.46%, 경유 0.20%, 공동주택관리비 0.12%, 보험서비스료 0.10%, 전세 0.10%, 빵 0.10%, 등유 0.08% 순으로 영향이 컸음
- 전기요금 인상(0.17%p)이 전월대비 물가상승률(0.13%p)을 끌어올린 형태

■ 2023년 줄줄이 예고된 물가인상과 가계수지 악화

- 정부는 특단의 대책 없이 공공요금 인상을 높이겠다는 입장 ⇒ 추가적인 물가상승 가능성
- 공공부문 : 전기요금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및 노인연령 인상논의, 상하수도요금 인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요금 인상, 주차요금 인상 등이 줄줄이 예고
 - 대중교통요금 20% 인상 시 물가상승률 0.25%p 증가 예상
- 민간부문 : 술값* 인상,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외식비 등 인상 예상, 대학등록금 인상
 - * 맥주, 막걸리에 대한 주세는 물가에 연동되며, 정부 시행령에 따라 4월부터 세금 증가
- 소득하위 80% 가구의 흑자액 규모가 1년 동안 모두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흑자액 증가

■ 물가대책 관련 해외사례 및 정책방향

- 대중교통비 : 독일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참조할 필요
 - 승용차 사용량 감소, 독일전역 여행 증가, 물가상승률 하락 등 높은 정책 효능감
- 에너지물가 : 유럽의 물가지원금 및 황재세 도입을 추진할 필요
 -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일본 등 현금지원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6개국은 이익이 집중된 대기업에 한시적 추가과세

▶ 키워드: 소비자물가지수, 물가요인분해, 대중교통요금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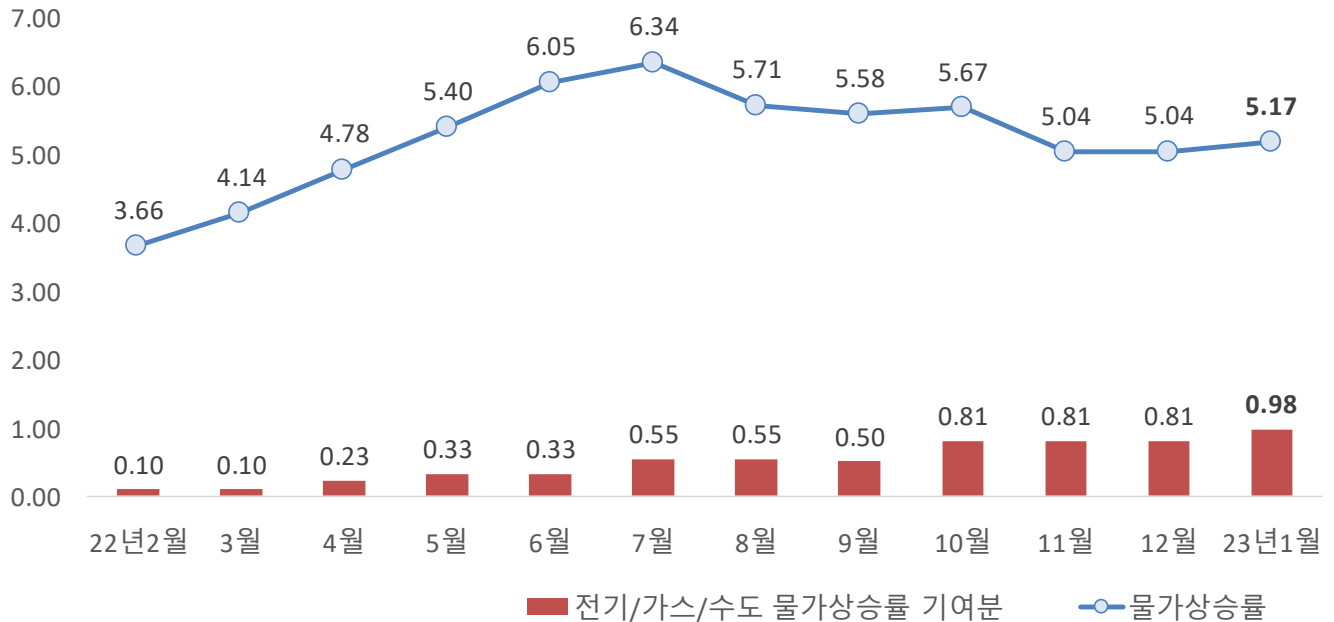
1. 물가상승률 현황

○ 물가상승률 다시 반등 : (2022년 12월) 5.04% → (2023년 1월) 5.17%

-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7월 이후 하락추세였다가 올해 초 0.14%p 증가전환
- 정부가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물가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린데 기인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전기·가스·수도 기여분 : 전년동월대비 >

(단위: %, %포인트)



자료: KOSIS(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2023.2.7.추출)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연구원 작성

○ 1월 물가상승률 5.17%는 도시가스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견인

- 도시가스 0.46%p, 전기료 0.46%p, 경유 0.20%p, 아파트관리비 0.12%p 등 생활밀착형 주요 품목이 물가상승을 견인했고, 반대로 휘발유 가격이 안정되면서 상승률을 0.09%p 낮춤

< 물가상승률 기여도 상위/하위 품목 : 2023년 1월 >

	순위	품목	가중치	가격 변화율(%)	물가상승률 기여도 분해(%P)
인상 품목	1	도시가스	12.7	36.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2	전기료	15.5	29.5	
	3	경유	13.0	15.6	
	4	공동주택관리비	21.0	5.8	
	5	보험서비스료	8.6	12.0	
하락 품목	1	휘발유	20.8	-4.3	
	2	쌀	5.5	-9.3	
	3	배추	1.5	-26.7	
	4	유치원납입금	1.9	-19.1	
	5	토마토	1.5	-22.6	

주: 458개 품목(가중치 합계 1,000)에 대해 물가상승률 기여도 순으로 정렬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KOSIS(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2023.2.7.추출) 자료를 이용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 물가상승률 증가전환(전월대비 +0.13%P)은 전기료 인상(+0.17%P)이 견인

- 물가상승률 기여도의 전월대비 증가분을 살펴보면, 정부가 1월에 인상한 전기료에 의한 물가 상승효과가 0.17%P로 가장 컸고 돼지고기 0.04%P, 승용차임대료 0.04%P 순
-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 경우 -0.08%P, 딸기 -0.03%P, 보험서비스료 -0.03%P 등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하방요인으로 작용

< 물가상승률 기여도 증가분 상위/하위 항목 : 2023년 1월 >

구분	순위	품목	전년동월대비 가격변화율(%)			품목별 물가상승률 기여도(%P)		
			'22년 12월	'23년 1월	차이(%P)	'22년 12월	'23년 1월	차이
인상품목	1	전기료	18.6	29.5	10.9	0.29	0.46	0.17
	2	돼지고기	-1.8	1.9	3.8	-0.02	0.02	0.04
	3	승용차임대료	-9.6	6.2	15.8	-0.02	0.01	0.04
	4	오이	-15.8	25.8	41.6	-0.01	0.02	0.03
	5	커피	8.6	17.5	8.8	0.02	0.05	0.02
하락품목	1	경유	21.9	15.6	-6.4	0.28	0.20	-0.08
	2	딸기	2.3	-17.2	-19.5	0.00	-0.03	-0.03
	3	보험서비스료	14.9	12.0	-2.9	0.13	0.10	-0.03
	4	수입승용차	3.9	1.7	-2.3	0.04	0.02	-0.02
	5	수입쇠고기	2.6	-3.0	-5.6	0.01	-0.01	-0.02

주: 458개 품목(가중치 합계 1,000)에 대해 물가상승률 기여도 순으로 정렬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KOSIS(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2023.2.7.추출) 자료를 이용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 소비자물가지수 계산방식 >

□ 소비자물가지수 : 각 가정이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

□ 계산방식

- 2020년을 기준으로 선정된 소비자의 458개 대표품목에 가중치(가중치 총합 1,000)를 부여하며, 매월 통계청에서 전국 소매점의 대표품목 가격을 조사
- 라스페이레스 산식(Laspeyres' Formula)을 이용하여, 2020년의 상품 가중치에 최근 가격변화를 반영
- 수식 :
$$CPI = \frac{\text{상품1 물가지수} \times \text{상품1 가중치} + \dots + \text{상품458 물가지수} \times \text{상품458 가중치}}{\text{전체 가중치}(1,000)}$$
- 2020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100.0으로 함

□ 계산 예시

- 쌀(가중치 400) 120, 전세(가중치 400) 110, 휘발류(가중치 200) 150

$$CPI: 122 = \frac{120 \times 400 + 110 \times 400 + 150 \times 200}{1,000}$$

- 물가상승률 기여도 계산법

- 가중치 10인 물품(담배, 전체 가중치 1,000)의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한 경우,
물가상승률 기여도 : 0.5%P = 10 × 50% ÷ 1000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상위 24개 대표품목 : 2020년 기준

품목	전세	월세	휴대전화료	공동주택 관리비	휘발유	외래진료비	전기료	고등학생 학원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가중치	54.0	44.3	31.2	21.0	20.8	19.2	15.5	13.5
품목	경유	중학생 학원비	도시가스	구내식당 식사비	입원진료비	휴대전화기	사립대학교 납입금	돼지고기
순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가중치	13.0	12.8	12.7	11.9	11.7	11.0	10.8	10.6
품목	담배	다목적 승용차	수입승용차	생선회 (외식)	국산쇠고기	온라인콘텐츠이용료	보험 서비스료	시내버스료
순위	17위	18위	19위	20위	21위	22위	23위	24위
가중치	10.2	10.2	9.2	9.1	8.8	8.8	8.6	7.4

주: 458개 항목의 가중치 합계는 1,000임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자료(2020년 기준)를 이용하여 민주연구원 재구성

(https://kostat.go.kr/incomeNcpi/cpi/cpi_cp/1/4/index.action)

2. 2023년 줄줄이 예고된 물가인상

-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입장 ⇒ 추가적인 물가상승 가능성
- 전기료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및 지하철 노인연령 인상논의, 상하수도요금 인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요금 인상, 주차요금 인상, 술값* 인상, 라면값 인상 등이 줄줄이 예고
 - * 맥주, 막걸리에 대한 주세는 물가와 연동되며, 정부 시행령에 따라 4월부터 세금 증가
 -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외식비 등 서비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14년 동안 동결된 대학교 등록금 인상 시작 : 전국 대학 총장 53.5% 인상 계획
- 물가상상 시나리오에 따른 물가상승률 기여도 분석
 - 정부가 요금인상을 고려하는 품목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소폭의 가격 인상이라 할지라도 물가상승률에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음
 - 물가상승률 추사상승 ⇒ 기준금리 인상요인 ⇒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 주요 물품의 향후 물가인상과 물가상승률 기여도 시나리오 >

품목	CPI 가중치	물가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물가상승률 기여도(%P)			
		5%	10%	20%	30%
전기료	15.5	0.08	0.16	0.31	0.47
대중교통 ¹⁾	12.6	0.06	0.13	0.25	0.38
상하수도	7.9	0.04	0.08	0.16	0.24
주차료	1.1	0.01	0.01	0.02	0.03
쓰레기 종량제봉투	0.9	0.00	0.01	0.02	0.03
소주·맥주·막걸리 ²⁾	14.0	0.07	0.14	0.28	0.42
대학교납입금	14.4	0.07	0.14	0.28	0.42
라면 ²⁾	3.4	0.02	0.03	0.07	0.10

주: 1) 대중교통요금 : 도시철도료, 시내버스료, 시외버스료, 열차료 가중치 합산

2) 해당 항목의 소매, 외식 가중치 합산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KOSIS(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3. 가계수지 현황

- 소득하위 80% 가구의 흑자액 규모가 1년 동안 모두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흑자액 증가
- 총소득 :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를 기점으로 소득하위 80%는 소득이 증가한 반면, 소득상위 20%는 소득이 소폭 감소
 - 소득하위 1분위는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1년 전 소득을 회복하지 못했음
 - 소득하위 5분위는 반대로 2022년 1분기를 기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연간 증가율이 가장 높음
 - 총지출 : 소득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모든 분위에서 평균지출액이 빠르게 상승
 - 모든 가구분위에서 총지출이 1년 동안 4.5%~8.8% 증가
 - 흑자액 : 미래소비여력을 나타내는 흑자액은 소득상위 20%를 제외하면 모두 감소세
 - 소득하위 1분위 : 2021년 3분위기 월평균 27만원 적자에서 2022년 3분기 월평균 34만원 적자로 적자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미래소비여력 소진될 가능성 매우 큼
 - 소득하위 2~4분위 :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나 1년 사이 월평균 흑자 규모가 6.5만원, 11.9만원, 20.7만원 감소. 이후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총지출 증가폭이 큰 점을 감안하면 흑자액 감소 예상
 - 소득하위 5분위(상위 1분위) : 2022년 1분기를 기점으로 흑자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흑자규모가 상당하고 1년 전과 비교해도 흑자액이 증가 ⇒ 미래소비여력 보유

< 소득 5분위 가구별 평균가계수지 >

(단위: 만 원, 월평균)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증가분	증가율
총 소 득	1분위	114	106	104	113	113	-1.2	-1.0%
	2분위	265	253	254	267	272	7.2	2.7%
	3분위	402	388	395	409	412	10.6	2.6%
	4분위	579	561	575	594	595	16.0	2.8%
	5분위	1,004	1,013	1,083	1,032	1,041	37.6	3.7%
	전체	473	464	483	483	487	14.0	3.0%
총 지 출	1분위	141	136	136	141	147	6.4	4.5%
	2분위	220	218	224	219	233	13.8	6.3%
	3분위	305	306	305	317	328	22.5	7.4%
	4분위	419	414	411	438	455	36.7	8.8%
	5분위	665	629	672	638	696	31.3	4.7%
	전체	350	341	350	351	372	22.1	6.3%
흑 자 액	1분위	-27	-30	-31	-28	-34	-7.6	28.3%
	2분위	45	36	30	49	38	-6.5	-14.5%
	3분위	97	82	90	92	85	-11.9	-12.3%
	4분위	161	147	164	155	140	-20.7	-12.9%
	5분위	339	384	412	394	345	6.3	1.8%
	전체	123	124	133	132	115	-8.1	-6.6%

주: 흑자액 = 가구 총소득 - 총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5분위별 가계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4. 물가대책 관련 해외사례 및 정책방향

○ 대중교통비 대책

- 독일은 에너지수요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발행 ⇒ 국민 교통비 절감
 - 대중교통 1달 무제한 이용권을 9유로*에 판매(2022년 6월 시행). 예산은 3개월간 25억유로(3.3조원) 예상됐으며 1달 동안 2,100만 장이 팔림
 - * 기존 베를린 대중교통 이용권 : 1회권 3유로, 1달권 86유로
 - 자동차 사용량 감소, 독일전역 적용으로 여행 증가 등 일상에서 정책 효능감 체험
 - 대중교통 무료 이용권은 자동차 연료수요를 줄이고 직접 물가상승률을 줄일 수 있으며 동일 예산이더라도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음
 - 2022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재정감소분이 연 5.8조 원
- ⇒ 독일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정책대안으로 참조할 필요

○ 에너지물가 대책

- 현금지원 : 어려워진 국민경제를 위해 현금 지원
 - 프랑스 : 10.8조 원 전기소비세 감면
 - 영국 : 2022년 4월부터 주민세 150파운드(24만 원) 감면
 - 스페인 :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인하(21% → 10%)
 - 일본 : 가구당 평균 4.5만 엔(약 96만원) 지원. 기업도 춘투에 대비해 인플레이션 수당 지급
 - 미국 캘리포니아주 : 가구당 최대 1,050달러(약 135만 원) 현금 지급
- 횡재세 :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이익이 집중된 대기업에 대해 초과이익세(Windfall Tax) 도입
 -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유럽 6개국 도입
 - 영국 : 이익이 급증한 에너지기업(석유, 가스기업 등)에 대해 2022~2025년 동안 25% 추가과세
 - 이탈리아 :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00만유로 이상 이익이 증가하고 이익률이 10% 이상이 에너지 기업에 대해 25%의 일회성 추가 부담금 과세
 - 스페인 :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발전소에 횡재세(초과이익세) 과세

⇒ 유럽의 물가지원금 및 횡재세 도입을 고려할 필요

※ 우리나라 정유4사의 2022년 1~9월 순이익 11.8조 원 규모

< 우리나라 정유4사의 순이익(법인세차감전) : 2019~2022년 >

(단위: 억 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3분기	2022년 증가율
			1~3분기			
SK이노베이션	6,844	-27,584	8,310	9,281	36,896	298%
GS칼텍스	5,944	-10,934	14,012	9,033	35,906	297%
S-Oil	1,104	-11,678	18,780	14,890	25,689	73%
현대오일뱅크	4,035	-5,710	7,935	369	19,653	5229%
4사합계	17,927	-55,907	49,036	33,573	118,143	252%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기업별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작성